



여성노동자관리론

작품개발을 위한 즉흥,
장단 연구 및
연희해체 워크숍
과정 기록집

김소라



<여성농악 그리고 굿>
작품개발을 위한 즉흥,
장단 연구 및
연희해체 워크숍
과정 기록집

김소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책은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의과정 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단체 소개



김소라

- 한국장단음악축제 장단유희 총감독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음농악 이수자
-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 박사수로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겸임교수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출강

한국의 타악연주자, 월드뮤지션이자 프로듀서로 경계 없는 활동을 이어가며 주목받은 김소라는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타악·연희 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왔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 7-2호 정음농악 보유자 유지화 명인을 사사하였다.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타악 연희과 수석 입학 및 수석 조기졸업 이후 동대학원에서 한국음악학 석사학위를 받고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 박사(예술경영)를 전공하여 음악적 실기와 공연 예술 시장의 이론적 바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하는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정규 1집 <비가 올 징조> 발매 이후, 세계 최대 음악 박람회 WOMEX 2018, 북미월드뮤직 서밋 MUNDIAL MONTREAL 2018 공식 쇼케이스를 통해 유럽과 북미 월드뮤직씬에 성공적으로 데뷔하였다. 첫 정규 앨범은 제16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 크로스오버 음반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유럽&북미 &오세아니아 7개국 25개 도시의 유명 극장과 페스티벌 단독 월드 투어를 진행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세계 최대 음악페스티벌 중 하나인 WOMAD UK 페스티벌에서는 <올해 최고의 스타 중 한명은 한국의 타악 연주자 김소라이다. Music OMH>라고 평가 하였다. 2021년 정규 2집 앨범 <랜드스케이프> 작품으로 2021 서울문화재단,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공식 아티스트, 한문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에 선정, 2022-2023 김소라 장단 콘체르토 프로젝트 <총돌이론>, <이데아>는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예술창작 작품에 선정되어 다양한 장르의 작곡가, 지휘자와 협업하면서 관현악, 실내악 음악으로서 장단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 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을 통해 장단 콘체르토의 주요 레퍼토리를 발표하였다. 김소라만의 장르를 꾸준히 만들어 내면서 더욱 깊어진 예술성과 음악성을 기반으로 전통타악을 대표하는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여성농악 그리고 굿>
작품개발을 위한 즉흥,
장단 연구 및
연희해체 워크숍
과정 기록집

- 현승훈
현승훈연희컴퍼니 대표 및 여주전통연희단 예술감독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읍농악 이수자
대구달성다사 12차진굿 보존회 금회복춤 전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졸업 및 전문사 수료
사) 사물놀이 한울림 수석단원 역임
 - 손정진
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 전승교육사
서울특별시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 음악학 박사 수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과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출강
 - 임지혜
월드뮤직그룹 듀오벳 동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출강
사)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 정회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및예술전문사 졸업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강사 역임
 - 서한나
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 이수자
부산시 무형유산 제23호 부산기장오구굿 전수조교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판소리전공 졸업 및 동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수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출강
 - 하늘벗
총괄 PD
 - 손주민
기록
-

총 사업기간	2024.5.1-2024.12.31	
참여예술가	김소라 (예술감독), 서한나 (무속연희자), 손정진 (무속장단 연희자), 현승훈 (풍물연희자), 임지혜 (선율연구자), 손주민 (기록), 하늘벗 (총괄기획)	7명
창작과정	<p>자체 워크숍 3건 (총9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사당 청두곳 3길 12 연습실 - 장소 : 여주시 독바위길 66 연습실 - 장소 : 안성시 서동대로 4726 국악대학 연습실 <p>과정공유회 1건 : 2024.11.2 토요일 14:00-15: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효 갤러리 5전시실 <p>(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p>	

사업목적

연희라는 큰 장르 안에는 농악, 무속, 탈춤 등 세부 장르가 존재하고 있다. 연희장르가 세분화되고 장르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통 연희를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창작의 개념을 포함하여 더욱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단체는 [농악]의 창작화 즉,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전통농악을 오랫동안 학습하고 전승하면서 농악고유의 의미와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창작의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농악연희 작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단연구 및 연희해체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더불어 농악이라는 장르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굿)이라는 연행 방식은 무속의 의미와 상통하며 가,무,악,극 형태가 세부 프로그램이 연행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농악+굿+선율]을 새롭게 바라 볼 수 있는 연구과정을 통해 과거 농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대의 새로운 창작농악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본 사업은 <여성농악 그리고 굿> 작품 개발을 위한 사전 창작의 과정이다. 주요 내용은 풍물, 무속의 연행과정과 연주법등을 학습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단구성, 몸짓 개발, 선율 작곡등을 실험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농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조명 뿐만아니라 가, 무, 악 일체를 들여다 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농악의 개념 안에서 연주 혹은 대형을 바꾸는 형식은 본 사업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루기 어렵다. 이에 호남농악과 동해안별신굿을 분석한 장단적 측면, 장단과 선율의 앙상블을 위한 작곡적 측면, 그리고 농악의 몸짓과 대형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안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전통 농악의 역사를 품고 동시대의 예술적 작품으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창작농악을 구상하는데 집중하여 창작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창작의 과정은 창작농악의 가능성을 찾고 음악적, 연희적 실험등을 거쳐 작품의 가치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교류하는 사전활동의 의미를 지닌다.

기획의도

한국 전통연희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인 농악과 굿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동시대의 새로운 농악을 만들어 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프로젝트의 핵심 주제인 [여성농악]은 창작농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전승되던 전통농악의 형식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적용하고 단체만의 독립적인 레퍼토리를 개발해내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기존의 남성 중심의 농악에서 여성 연희자들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형태의 구성을 갖추어 활동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쇠퇴기를 겪으며 현재에는 활동이 미미하다. 과거 여성농악단을 이끌던 주요 여성 상쇠 (유지화, 나금추, 유순자)는 각각 정읍, 부안, 구례 지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이 이끄는 농악보존회를 통해 과거 여성농악과 호남농악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호남농악, 여성농악을 기반으로 농악 연행방식의 해체, 장단의 재구성, 음악과의 협업 등 창작과정 및 실험 을 거치면서 여성 연희자가 중심이 되는 농악 그리고 굿을 구성하여 동시대에 알맞는 연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창작실험 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세부내용

연구과정

1. 연희 장르와 농악의 창의적 발전 필요성

전통 연희의 세부 장르에는 농악, 무속, 탈춤 등이 있으며, 단순한 전승을 넘어 창작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단체는 전통 농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전통의 의미와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창작성을 가미한 농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 창작의 필요성과 목표: '여성농악'의 부활과 현대적 재해석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었던 농악에서 벗어나 여성 연희자들이 중심이 되는 창작 농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성농악을 구현하고자 한다. 특히 과거에 활동했던 여성 상쇠와 그들의 농악을 재조명하며, 호남농악의 전통과 가치를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한 여성농악과 굿의 연희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3. 연구 과정 및 창작의 방법론

본 프로젝트의 핵심은 실기 중심의 창작 과정을 통해 농악, 무속의 연행 방식과 장단의 재구성, 몸짓 개발, 선율 작곡 등의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 농악의 형식에서 벗어나 전국 각지의 농악과 무속을 분석하여 장단과 선율, 몸짓의 양상들을 연구함으로써, 농악이 종합예술로서 현대 예술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4. 사전 창작 실험의 의의와 방향성

이번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작품 개발을 위한 사전 창작 과정으로서, 다양한 실험적 접근을 통해 농악과 굿의 창의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음악적 실험과 연희 구조의 해체를 통해 작품의 가치와 방향성을 탐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시대에 알맞은 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결론: 창작을 통한 전통과 현대의 융합

본 사업은 여성농악과 굿의 창작화를 통해 과거 농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춘 새로운 연희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악은 전통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예술 작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 전통연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현대 예술의 흐름에 맞춘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크샵

여성농악 작품개발을 위하여 장단 연구 및 해체, 선율개발등을 위한 3차 워크숍 (총 9회) 를 진행하였다. 농악 및 무속의 장단을 분석하였고 (장단적 측면), 농악에 선율을 융합하기 위한 실험(작곡적 측면), 그리고 농악의 몸짓과 대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연희 해체 (안무적 측면)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농악의 역사를 품고 동시대의 예술적 작품으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작품을 위하여 창작의 과정은 필수적이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연희장르를 전부 해체하고 연구하기에는 본 사업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작품을 구상하기 위한 실험 및 연구적인 과정이 뒷받침 됨으로써 향후 작품의 완성도 및 설득력을 획득하였다는 것이 본 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의 가치라 할 수 있다.

회차	기간	주요내용	핵심키워드	참여자
1차 여주시 독바위길 66 연습실	2024. 6.7 금요일	경기 옷다리 농악과 호남우도농악의 장단을 해체, 재구성 하여 새로운 타악곡의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굿거리 장단의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굿거리 장단을 탈피하여 연주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습을 진행하고 실험 하였다. 변주 장단 1,2,3,4,5	#농악 #굿거리 #연주곡 #변주장단	김소라 현승훈
				
1차 안성시 서동대로 4726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연습실	2024. 6.17 월요일	동해안 별신굿 꽃노래굿 학습 장단구성 및 연행방식을 해체를 위한 논의	#동해안 별신굿 #무가 #꽃노래굿 #경기도당굿 #깨끔춤 #몸짓연구	김소라 현승훈 손주민 외.
	2024. 6.24 월요일	경기무속 깨끔춤 연구. 반주 장단 및 몸짓의 연행방식 연구 및 연습 경기 무속장단 분석.		
				

회차	기간	주요내용	핵심키워드	참여자
1차 안성시 서동대로 4726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연습실	2024. 6.27 일요일	-풍물 굿거리 장단 + 동해안 별신굿 무속 거무장 장단의 공통점과 차이점 인식 -굿거리 장단의 변주를 위한 해체 및 재구성 -실연을 위한 작품구상.	#동해안 별신굿 #무가 #꽃노래굿 #경기도당굿 #깨끔춤 #몸짓연구	김소라 손정진
	2024. 6.28 월요일	-굿거리 장단 형식 (거무장, 도살풀이, 12박, 6박, 4박) 을 혼합장단 개발 - 엇모리 장단 형식 연주장단 개발 및 구음을 통한 연주방법 구상.		



2차 사당 청두곶 3길 12 연습실	2024 7.1 월요일	별신굿 무가 장단 및 실연 동해안 별신굿 꽃노래 사설을 기반으로 전통적 무속연행 방식을 탈피하고 현대의 공연양식을 접목하여 반주 연주 양식을 배제한 노래양식을 개발하는데 집중하였다. 여성 연희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향후 여성농악단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래양식에 대한 고민과 함께 무가 사설의 해석을 통해 관객들에게 쉽게 무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장단을 연구하고 학습한 내용을 실연하였다.	#동해안 별신굿 #무가 #꽃노래굿 #경기도당굿 #깨끔춤 #몸짓연구	김소라 서한나 손주민 외
------------------------------	--------------------	--	---	------------------------



2차 사당 청두곶 3길 12 연습실	2024 7.2 화요일	별신굿 무가 장단 학습 및 장구 연주곡 개발을 위한 장단 해체 및 실험 동해안 무속에서 사용되는 엇모리 계열 장단(5박) 민속악 장단의 (엇모리, 진쇠 5박, 10박)계열의 장단을 해체하여 장구 연주곡을 개발하는데 집중하였고 특히 지난 워크숍을 통해 연구하였던 굿거리형 장단을 실연해 봄으로써 장단의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전통적인 연주형태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동해안 별신굿 #장단 #장구 연주곡 개발 #엇모리 #굿거리	김소라 손정진
------------------------------	--------------------	--	---	------------

회차	기간	주요내용	핵심키워드	참여자
				
<p>3차</p> <p>사당 청두곳 3길 12 연습실</p>	<p>2024. 8.30 금요일</p>	<p>별신굿 장단, 무가 학습 및 실연, 장단연구 및 실험 / 무가 선율 + 장단 연결 및 창작곡 개발을 위한 연습</p> <p>동해안 무속의 대표장단인 드령갱이 1장, 2장, 3장을 분석하고 가야금의 장단화를 모색하여 선율을 연구하였다. 특히 드령갱이 1장 10박 장단을 학습하고 실제 장구와 가야금이 합주를 도모하여 무속장단의 선율화를 시도하였으며, 동해안 별신굿의 구조를 이해하여 뚜렷한 선율을 구상하기 위한 실험이 주를 이루었다.</p>	<p>#동해안 별신굿 #장단 #가야금 #선율개발 #드령갱이 #10박계열</p>	<p>김소라 임지혜</p>
				
<p>3차</p> <p>사당 청두곳 3길 12 연습실</p>	<p>2024. 9.1 토요일</p>	<p>즉흥 장단 합주</p> <p>무가 선율 + 장단 연결 및 창작곡 개발을 위한 연습</p> <p>-동해안 무속의 대표장단인 드령갱이 1장, 2장, 3장을 분석하고 가야금의 장단화를 모색하여 선율을 연구하였다. 특히 드령갱이 1장 10박 장단을 학습하고 실제 장구와 가야금이 합주를 도모하여 무속장단의 선율화를 시도하였다.</p> <p>- 풍물 장단(칠채)를 중심으로 선율을 만들고 장단법 개발을 위한 즉흥연주 및 합주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타악기와 가야금 선율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연구 중심의 합주를 진행하였다.</p>	<p>#동해안 별신굿 #웃다리 농악 #칠채 장단 #가야금 #드령갱이 #선율작곡 #즉흥 #합주</p>	<p>김소라 임지혜</p>
				

본 연구는 전통 타악 연희자의 관점에서 농악의 창작적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농악과 무속의 장단, 대형, 무가의 융합을 통한 창작농악 개발은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특히, 과거 여성농악과 그 활동을 창작농악의 초기 모델로 설정하여 역사적 배경과 주요 레퍼토리를 살펴보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여성농악을 구상하기 위해 실제 워크숍과 실험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창작농악의 가치와 그 가능성을 검토 할 수 있었다.

창작과정 배경 및 필요성

농악은 한국 전통 연희의 대표적인 장르로, 다양한 타악기와 춤, 노래, 퍼포먼스가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농악은 본래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목적을 지닌 행사로 시작되어 한국 전통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었으며, 주로 마을의 대동굿이나 설날, 추석 같은 명절에 농악이 연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유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시대에 따라 농촌의 노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오락적인 기능과 더불어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농악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 농악은 민족 문화 보존의 상징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 전통 연희 문화의 대표적 장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농악은 주로 공연 예술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전통을 계승하되 현대적 관객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농악은 과거의 공동체 생활에서 유래된 만큼 특정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현대적인 예술 환경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농악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감각과 창작성을 가미해 관객과 더 깊이 소통하고, 현대 문화와 융합할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창작의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농악을 해석하고 창작농악 구상을 위한 초기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1960-70년대 성행하였던 여성농악을 창작농악의 시초로 바라 보면서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농악이 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창작과정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창의적 해석을 통한 농악의 현대화

전통타악연희자의 시선으로 바라 볼 때, 전통 농악의 장단과 춤, 노래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무속, 탈춤 등 다양한 전통 예술 요소와 융합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창작을 통해 현대적인 감각을 부여

하고, 전통적인 장단을 재해석하는 등 관객에게 더 많은 예술적 가능성을 찾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2. 주체적 역할의 확장

농악은 남성 중심의 연회에서 발전해 점차 여성 농악, 청년 농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확장되어 왔다. 여성농악단의 전성기에는 성별의 구분을 떠나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성연희자들이 주체적인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창작농악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농악 고유의 틀과 장단을 수용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유연하게 농악의 활동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당시의 농악은 단순한 민속놀이를 넘어, 현대 예술의 흐름에 맞는 공연 예술로서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였다.

3. 과거 여성농악의 사례를 통해 본 무속 연희와의 연관성

과거 여성농악은 농악과 무속 연희의 결합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여성농악은 주로 남성 중심의 농악에서 벗어나 여성 연희자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었던 예술 장르로, 특히 호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정읍, 부안, 구례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 상쇠 유지화, 나금추, 유순자는 지역의 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되었으며, 이들의 농악 연희는 무속과 농악이 결합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농악은 무속 연회에서 나타나는 여성 중심의 연행성과 신성성을 농악 연희에 접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성농악은 남성 중심 농악과 차별화되는 섬세한 장단과 움직임 보였다. 또한 호남농악의 전통성을 이어 받은 여성농악의 주요 활동 목적은 단순한 오락적 기능을 넘어서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례적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는 농악이 본래 지닌 공동체 결속 강화의 의미와 무속의 제의적 의미가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있다.

무속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여성농악에서는 상황에 따라 즉흥적 감정 표현과 다양한 장단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무속적 연희와 유사한 몰입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으며 장단과 연주법의 유사성 그리고 굿의 구성형식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4. 농악과 무속의 관계성

전통타악연희자로서 장단을 학습하고 연행하면서 농악과 무속의 관계성에 대하여 연구에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농악과 무속의 융합을 통해 예술적 접근으로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창작농악을 구상하기 위한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특히 호남우도농악과 동해안 별신굿에서 연관성과 융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고 창작과정의 범위를 정할 수 있었다.

무속은 한국 전통 신앙이자 종교적 의례로, 사람과 신(神)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무당이 신과 소통하는 의식이다. 무속 연희의 음악적 특징으로 장단의 반복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농악 연희의 음악적 특징과도 같은 형식이기도 하다. 반복적인 장단의 구성은 청중이나 무속, 농악 연행자 모두가 음악에 몰입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두 장르 모두 즉흥성을 띄고 있다. 연행자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형될 수 있어 매우 유동적이며 상쇠의 신호에 따라, 무녀가 부르는 무가의 흐름에 따라 장단의 변화가 자유롭고 유연하게 연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악과 무속음악의 공통점을 찾았다. 농악과 무속 모두 판의 신비롭고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제의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으며, 느리고 울림이 깊은 장단 혹은 빠르고 긴장감을 유발하는 장단이 사용되어 관객의 집중과 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5. 농악장단과 무속장단의 차이점과 융합의 가능성

그러나 무속음악과 농악의 장단은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무속 장단은 주로 제의적, 의례적 성격을 띠고 있어 장단의 반복성과 고요한 울림을 통해 신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단이 특정 구성을 가지면서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형될 수 있는 즉흥성이 강하며, 신비롭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단이 많이 사용된다. 반면에 농악 장단은 주로 대중적 오락과 공동체적 결속을 목적으로 하며, 빠르고 활기찬 리듬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형화된 장단 패턴과 빠르고 경쾌한 리듬이 주를 이루며, 연행자들이 함께 어울려 연주하며 공동체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무속과 농악 장단의 융합을 통해 신비롭고 깊이 있는 무속적 요소와 생동감 넘치는 농악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감정의 폭이 넓은 새로운 연희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무속의 반복적 장단을 농악에 부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악이 단순한 놀이와 오락을 넘어 관객의 몰입을 이끄는 깊이 있는 장르로 발전할 수 있으며 무속에서의 즉흥적 요소를 농악 장단과 결합해 다양한 연주 방식과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통 농악의 장단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여성농악은 무속 연희와 농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형태로 발전했다고 보여지며 이는 현대 농악 창작 과정에서 무속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전통의 계승뿐 아니라 현대적 해석과 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본 단체는 [여성농악]을 새로운 장르로 바라보며 고유명사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활용해 무속과 농악을 융합한 새로운 농악 장단과 연희 형식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이는 현대 전통 예술의 창작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창작과정의 방향성

창작과정을 통해 본 단체는 4가지의 창작농악의 가능성을 찾았다.

농악장단과 무속장단의 융합을 통해 농악의 리듬에 창의성을 더하고, 무속의 몸짓을 기반으로 새로운 동작과 대형을 실험하며, 무가를 추가해 정서적으로 풍부한 레퍼토리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선율적인 측면이 더해져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농악으로 발전한다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독창적인 예술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1. 농악장단과 무속장단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농악장단 개발 가능성

전통 장단의 창의적 결합: 농악과 무속은 각각 고유의 장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융합함으로써 두 장르의 정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장단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융합 장단을 통해 전통 농악이 가진 에너지와 무속이 가진 영적 분위기를 모두 담아내는, 감정의 폭이 넓은 연희 작품을 창작할 수 있으며 예술적 표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다양한 리듬과 타악기를 활용한 실험적 접근으로 관객에게 신선한 음향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 연희의 현대적 확장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속 연희 몸짓에 기반한 농악 대형과 움직임 실험

무속의 동작과 농악의 융합: 무속 연희의 동작을 농악의 움직임과 결합함으로써 기존 농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대형과 동작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굿에서의 몸짓과 농악의 집단적 움직임을 조화롭게 구성해 신비롭고 웅장한 무대를 연출할 수 있다. 또한 무속 동작을 차용한 농악 움직임은 전통적인 대형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식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고, 연희의 동적 변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농악과 무속의 요소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창작안무를 보다 깊이 연구하여 다양한 퍼포먼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미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무가를 활용한 농악 레퍼토리 가능성 확인

무가와 농악의 음악적 접목: 무가는 특정 신과의 소통을 위해 무속에서 전승된 소리이며, 이를 농악 레퍼토리에 추가함으로써 기존 농악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감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을 이라 여겨진다. 과거 여성농악의 레퍼토리를 살펴보면, 짧은 창극, 토막소리, 농부가 심지어 당시의 유행가등이 연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슬픔, 기쁨, 분노 등 감정의 표현 범위가 넓은 무가를 활용하여 농악의 감정 표현 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무악의 조화를 통해 극적 서사를 전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4. 선율적 요소를 활용한 농악의 가능성

농악에 등장하는 태평소는 유일하게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다. 전통타악기로 구성된 농악안에서 악기의 장점을 부각시켜 농악연희의 신명과 판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로 존재 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전통선율과 흐름이 고착화 되어 지역별로 개성과 차이가 있는 농악의 연행에 있어 차별화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이에 본 창작과정을 통하여 가야금 연주자와 협업하면서 장단에 어울리는 선율과 연주법을 개발하고 향후 창작농악을 구성할 시 중요한 선율적 요소로서 융합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작곡된 선율은 농악구성에 알맞는 기악 구성을 통해 새롭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단과 선율에 대한 창작과정은 참여예술가 임지혜의 연구로 정리하였다.

가야금 연주자가 바라보는 농악과 가야금의 창작 작업을 위한 분석과 연구

임지혜

가야금 연주자 관점에서 농악 가락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전통적인 장단 구조와 가야금의 연주적 특성 사이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수 있다. 가야금 연주자가 농악 가락을 해석하고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분석해보았다.

1. 농악의 리듬적 특성

농악은 매우 다채로운 리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농악 가락에는 빠른 속도, 복잡한 리듬 패턴, 반복적인 장단 등이 포함된다. 각각의 장단이 가진 고유한 리듬적 특징을 가야금 연주에 어떻게 녹여낼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장단 구조: 농악 장단은 매우 리드미컬하며 빠른 연타음과 함께 주로 2분박, 3분박의 혼합리듬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리듬은 가야금의 탄현 주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특히 세밀한 손놀림과 속도 조절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장단의 강약 조절: 농악에서는 북, 징, 팽과리 등 타악기의 강한 울림과 약한 울림의 대비가 분명하다. 가야금은 이와 같은 강약을 음색의 깊이와 터치 변화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음량과 속도의 변화를 연구해야 한다.

2.가야금의 연주적 특성

가야금의 음역과 농악 장단: 농악 장단의 낮은 북소리나 높은 팽과리 소리를 가야금의 음역대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연구해야 한다. 가야금의 음역은 대개 중저음에서 중고음까지이므로, 음색의 변화나 타악적 효과를 위해 특별한 연주법(예: 화성연주, 농현, 글리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타악적 표현의 가능성: 가야금은 줄을 때리거나 튕기는 방식으로 타악적인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악의 타악기적 요소를 가야금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탐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빠른 장단의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 손가락으로 줄을 빠르게 튕기는 연튀김 주법이나 손바닥을 사용하여 줄을 때리는 방법을 실험할 수 있다.

3.즉흥성과 변주

농악에서는 즉흥적인 연주와 연희적인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가야금 연주자가 이러한 즉흥성과 변주를 어떻게 가야금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 즉흥적 리듬변주: 농악 장단의 반복적인 리듬속에서 가야금이 독창적으로 변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한다. 예를 들어 타악기의 리듬이 반복되는 동안 가야금이 독립적으로 변주하며 자유롭게 음정을 변형하거나 텍스처를 확장하여 농악의 전통적 리듬에 즉흥적이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더할 수 있다.

- 연희적 요소와 가야금: 농악의 연희는 음악뿐만 아니라 몸짓, 동작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가야금 연주자 역시 연주 중에 몸짓이나 동작을 통해 리듬감을 시각적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4. 가야금과 농악 악기의 조화

가야금과 농악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농악의 장단이 중심이 되지만, 가야금이 그 안에서 독특한 음색으로 상호작용하며 장단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리듬적 해석을 더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 리듬의 상호작용: 농악 악기들이 주도하는 리듬 속에서 가야금이 주도적일 때와 보조적일 때의 역할을 나누어 분석한다. 예를 들어, 팽과리나 장구가 강하게 리드할 때 가야금은 그 뒤를 받쳐주는 리듬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야금이 솔로 역할을 할 때에는 농악 악기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 대화식 리듬: 가야금과 타악기 간의 리듬적 대화를 연구한다. 주고받는 리듬 속에서 가야금이 농악의 리듬을 어떻게 모방하고, 변주하며, 독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실험할 수 있다.

가야금 연주자가 농악 가락을 연구할 때에는 농악의 타악적 요소와 리듬의 복잡성을 가야금의 고유한 음색과 연주 기법으로 어떻게 변환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단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즉흥성과 변주, 그리고 타악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농악 가락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나아가 농악과 가야금의 실질적인 창작작업을 위한 연구를 심화해보았다.

농악 장단의 대표적인 장단인 칠채 장단을 가지고 가야금과 장구가 어떤 방식으로 창작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았다.

칠채 장단은 빠르고 리드미컬한 특성을 가진 농악 장단으로, 가야금과 장구의 조화 속에서 새롭게 창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장구가 농악에서 리듬의 뼈대를 제공하는 만큼, 가야금은 이를 보완하면서 독특한 색채를 더할 수 있다. 아래에 가야금의 역할과 창작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1. 가야금의 역할: 장단을 보완하고 변주하기

가야금이 장구와 함께 칠채 장단을 연주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리듬을 보완하면서도, 칠채의 속도감과 활기를 표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 리듬 강조: 장구가 빠른 리듬으로 기본 패턴을 제공한다면, 가야금은 중요한 박자나 강약을 강조하여 장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칠채 장단의 빠른 템포에 맞춰 가야금의 연주도 속도감을 유지하되, 장구의 리듬을 돋보이게 하는 쪽으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변주의 활용: 장구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할 때 가야금은 보다 자유롭게 변주할 수 있다. 칠채 장단의 구조를 활용하여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변화를 주며, 장구가 리드하는 리듬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듬의 틈새에 가야금이 짧은 패턴을 삽입하여 장단에 활기를 더하는 식의 변주가 가능하다.

2. 장구와 가야금의 리듬 대화

장구와 가야금 간의 리듬 대화는 농악의 생동감을 더욱 살릴 수 있다.

- 주고받기식 리듬: 장구와 가야금이 서로 번갈아가며 리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연주할 수 있다. 장구가 빠른 리듬을 연주하고 잠시 쉬어갈 때 가야금이 이어받아 즉흥적으로 변주하는 식으로 연결하면 두 악기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다.

- 강세와 약세의 대비: 장구가 강하게 리듬을 이끌 때 가야금이 이를 받아 부드럽고 여유롭게 응답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예를 들어, 장구가 강한 타격으로 장단을 제시하면 가야금이 그 다음 박자에서 약한 음으로 응답하여

리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3. 즉흥 연주를 통한 창작적 요소

칠채 장단 속에서 즉흥 연주는 새로운 연주 해석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즉흥적인 음의 반복: 칠채 장단의 속도감 있는 반복 리듬을 가야금으로 응용하며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을 빠르게 반복하면서 다양한 강약 조절을 주거나 음을 변화시키면서 유동적으로 변주하는 방식으로 리듬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

- 즉흥적인 리듬 변주: 장구의 리듬 속에서 가야금이 특정 박자에 맞춰 가볍게 변주하거나, 예상치 못한 리듬 변화를 통해 즉흥성을 부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칠채 장단의 반복성을 깨고 다양한 연주 해석을 할 수 있다.

4. 창작적인 연주 구성

- 리드미컬한 솔로: 가야금이 장구의 빠른 칠채 리듬을 잠시 벗어나 솔로로 리드미컬한 즉흥 연주를 펼칠 수 있다. 장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며, 가야금의 솔로가 끝날 때 다시 칠채 장단의 기본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식으로 구성하면 장구와 가야금의 조화가 극대화될 수 있다.

- 리듬 층을 쌓아가기: 장구가 기본 리듬을 제공하는 동안 가야금은 천천히 리듬 층을 쌓아가며 새로운 리듬 패턴을 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점차 연주가 풍성해지며 칠채 장단의 다이내믹한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가야금과 장구의 결합으로 농악의 칠채 장단을 해석할 때, 리듬적 강조와 자유로운 변주, 두 악기 간의 대화를 통해 독창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단체의 [<여성농악 그리고 굿> 작품개발을 위한 즉흥, 장단 연구 및 연희해체 워크숍] 창작과정에 대한 기록을 마친다.

*** 참고문헌**

여성농악인들은 당대에 범람하는 다양한 공연물을 수렴하고, 농악판의 '기술자'들끼리 인력을 공유하면서 화폐가치에 부응하는 '공연화 된 상품'을 창출해내기에 이르렀다. 여성 예인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생존전략에 해당하며, 이것이 곧 여성농악이 전승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여성 농악예인들은 여성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며 인기를 누렸다. 농악경연에 참가하고 포장걸립을 전전하면서, 여성농악인들은 우도농악 명인들로부터 전수를 받아 기량을 갖추었고, 화려한 복색으로 이목을 끌었다. 농악계의 여성들은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나름의 활동영역을 넓혀갔으며,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면서 융통성과 순발력을 발휘했다. 결과적으로는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흥행을 유도할 수 있었다.

- 생략 -

여성농악인들의 융통성과 대중친화력은 토막창극이나 줄타기 를 농악과 병행한 공연을 기획하고, 각양각색의 불거리와 들을거리를 선보이던 활동내력과 레파토리구성은 당시에 유행을 선도하던 여성농악인들의 공연기획력과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이미 해방공간에서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남자농악대가 각종 경 연대회에서 농악과 소리, 곡예 등으로 공연물을 구성했던 선례와 나름의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1959년 '남원여성농악단' 창설 이전, 앞서 살핀 남자농악대의 활약이 그래서 주목된다. 농악의 무대화라는 측면에서 이 여성 농악예인들의 활동은 각별하다. 명창 이화중선이 꾸린 남울회사는 협률사의 일종이다. 신기남의 구슬을근거로 공연내용을 추려보면, 악기잡이 5~6명이 꾸린 판굿과 연극(김연수, 우리국악단)과 판소리(임방울)를 협연하고, 삼무동을 타는가 하면 쌍줄을 타기도 했으며, 춘향과 이도령이 만나는 장면 등이 연출되었다. 이협률사는 극장무대를 장악한 신식농악, '新농악'의 상업적 흥행을 도모한 결사체로서 민간예인들이 주도한 유랑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이나극장 홍보용 길놀이, 짙막한 판굿, 치배별 개인놀이, 단가나 단막극의 조합은 해방 이후 포장걸립이나 여성농악단의 공연레파토리와 연계선상에있다.

박혜영, 공연문화연구 제 32집, 「남자(娘子)농악'과 '소녀(少女)농악'을 통해본 여성 농악예인의 활동」 2016.2
